

평생의 지기들을 만나다

책으로 쓰는 자서전 — 10

김병익 | 문학평론가

“기자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보람은 일생을 함께 어울릴 친구들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사귀 친구가 홍성원이었다. 그와 첫 인사 악수를 나눈 것은 65년 봄 황동규의 시집 출판기념회가 열린 비원의 잔디밭에서였다. 뒤에 홍성원은 나에게 김 현을 소개해줬다. 물론 나도 그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주간 한국》이 만든 꼬집기의 소설 필월자에 그 이름이 들어 있어 선입견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앞서 나는 나의 문화부 기자 생활을 겪어낸 자랑스런 바 있지만,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동아일보》 문화부의 선배 동료 기자들 덕분이었다. 처음 문화부에 들어갔을 때 그 부장은 소설가 최일남 선생이었다. 작은 체구에 겸손하면서도 소탈한 최선생은 휘하 기자들의 성품과 능력을 존중하며 부내의 분위기를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하게 이끌어줬다. 기자들이 취재 등으로 자리를 텅 비우는 시간에도 그분은 데스크를 지키며 끊임없이 신문과 잡지, 회보와 책을 보고 있었고 거기서 다뤄야 할 주제들과 필자들을 찾아내곤 했다. 그의 데스크 보는 방식은 이후의 내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

자부심과 투지가 왕성했던 문화부 기자들

쟁쟁한 기자들로 빛나던 당시 문화부의 선배는 서울공대 출신임에도 어떤 문리대 출신보다 인문주의적 지식과 사유를 가진 김재관씨(현 《자동차생활》 발행인), 소설가 안수길 선생의 장남으로 서울대 불문과 출신답게 연극·영화를 맡으며 풍부한 유머로 회식 때마다 주위를 유쾌하게 웃기곤 하던 안병섭씨(단국대 교수로 재직중 2년 전 작고), 지적이면서도 도저한 품위로 후배 기자들을 매혹시킨 여성 담당의 권영자씨(전 국회의원), 술을 즐기면서도 낙천적인 김승호씨, 영문과 출신의 대학 동기로 나보다 1년 앞서 아

기업마로 공채 시험에 합격해 기자가 된 정자환씨(현 가톨릭대 교수)가 그들이었다.

입사는 나보다 선배지만 문화부에는 늦게 들어와 연극·영화를 맡은 장운환씨(현 《대한매일》 논설고문), 입사 동기로 후에 미국에 유학해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근우씨(현 아주대 교수), 가정란을 맡은 재원으로 사진작가 주명덕씨 부인인 홍희자씨가 비슷한 연배의 문화부 기자들이었다. 물론 훌륭한 후배들도 내 뒤를 이어 문화부로 들어와 동료로 일하게 되는데, 이길범씨(현 EBS 감사), 정구중씨(현 《동아일보》 이사), 박병서씨, 이부영씨(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그들이었다. ‘동아사태’로 해직될 때 문화부 막내 기자였던 심정섭씨(현 서울여대 교수)는 나의 중매로 오생근씨(현 서울대 교수)와 결혼했다.

당시의 《동아일보》 문화부가 얼마나 쟁쟁했는가. 이 구성원으로 짐작되겠지만 기자로서의 자부심과 언론인으로서의 투지가 어느 부서보다 왕성했던 점도 사랑해야겠다. 1974년 가을 《동아일보》 기자의 ‘언론 자유 선언’으로 발발한 운동이 전국의 신문·방송사들로 맹렬하게 번졌고, 그 때문에 《동아일보》 광고 중단사태가 일어나고 이듬해 3월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동아

일보》와 동아방송의 대량 해직 사태가 잇달았으며, 이 기자들이 ‘동아투위’를 구성해 그들을 해직한 신문사와 권력을 향해 투쟁하게 된다. 이 시기에 나는 한국기자협회장으로서 언론자유운동을 지원했는데, 이 때의 기자회견 동아일보 분회장, 동아투위 위원장이 같은 문화부 기자인 장운환, 권영자씨였고 문화부 동료 전원이 농성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축출당하고 말아 문화부 좌석이 텅 비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였다.

‘문지 4K’ 해후 전말기

기자 생활 이후 나의 생애는 그러나 직장의 선배 동료보다는 이 시기에 사귀 글쟁이들과 더불어 이뤄진다. 20대 말부터 알게 된 이들은 그러니까 문우였고 동지였으며 일생을 함께 어울릴 친구들이 된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처음부터 오랜 지기처럼 편안하게 사귀 친구가 홍성원이었다. 그와 첫 인사 악수를 나눈 것은 65년 봄 황동규의 두번째 시집 《비가》(창우사)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비원의 잔디밭에서였다. 만만한 사촌형처럼 보이는 그는 그 전해에 《동아일보》의 50만원 장편 공모에 《디-데이의 병춘》이 당선되고 《한국일보》 신춘문예와 《세대》의 단편소설 공모에도 잇달아 당선된, 당시 신진 문학계의 기린아였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어려워하는 나였지만 처음 인사하면서부터 말을 놓기 시작한 그는 《동아일보》 연재로 신문에 자주 왔고 우리는 스스럼없이 그냥 자리를 같이하곤 하면서 편안한 태도로 토론하고 논쟁도 벌였다. 8남매의 장남인 그는 가정 사정으로 일찍부터 가장노릇을 해야 했고 평생 직장을 갖지 않고 전업작가로서 원고료로만 자신의 동생을 자립시키고 가족들을 부양했는데, 그러는 동안 그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그는 강한 결벽증으로 문학적 진지성과 엄격한 창작 태도를 고집하며 수많은 장편과 중단편을 정력적으로 썼고 그런 그에게 감탄해서 나는 ‘소설 공

장'이란 별명을 붙여줬다.

김 현도 그가 소개해줬다. 물론 그 이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주간 한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꼬집기의 소설 월평자에 그 이름이 들어 있어 선입견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홍성원은 그가 매우 뛰어난 비평가며 인품도 좋으니 마음놓고 사귀어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소설 월평을 청탁하면서 자주 만나게 된 그는 어느 술 자리에서 학년으로 3년 선배인 내게 앞으로 말을 놓자고 제의했다. 면전에서 거절할 수는 없는 일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음에 만나자마자 그는 대뜸 내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걸어와 오히려 내가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의 질긴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내가 문단판에 끼어들게 된 것도 거의 그의 강권 때문이었다. 후에 그는 자기가 대학원생으로 고된 조교노릇을 할 때 문학을 때려치울까 어쩔까 고민하는 중에 나로부터 신문 원고 청탁을 받고 서야 문학과 글쓰기로의 길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동인활동을 통해 비평가로 참여하기를 권한 것은 그것에 대한 자기의 답례라고 말한 바가 있다.

김 현과 같은 대학 불문과 동기생으로 《산문시대》 동인활동을 한 김치수는 김 현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된 사이로, 《중앙일보》 신춘문에 평론부문의 첫 당선자였던 그는 당시의 대출판사였던 친구 문화사에 염무웅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는 동아일보사가 가까운 그의 사무실 근처로 가서 그가 외상으로 굶는 밥집에서 술과 식사를 하며 그의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는 늘 든든한 호인의 품모였지만 그 내면은 의외로 섬세하고 자상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 일체의 험담이 없는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김주연은 《경향신문》 문화부에 일하고 있어서 취재중에 더러 만났지만 그와 아주 가까워진 것은 그가 2년 동안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문학과 지성》 편집동인으로 참여하고부터였다. 그는 그의 글처럼 문학적 감각은 명쾌하고 그의 사유는 그의 말처럼 유창했다. 후의 이른바 '문지 4K'의 인맥은 이렇게 이뤄진 것이다.

아내와의 인연을 맺어준 《어린 왕자》

대학시절부터 친했던 황동규와 기자 생활 초기에 사귀게 된 홍성원, 김 현, 김치수 등과 어울릴 즈음부터 나는 자연스레 많은 선배 문학인들을 갑자기 알아가기 시작했다. 위로는 고 은, 최인훈씨부터 정현중, 김승옥, 이청준, 염무웅, 박태순, 그리고 나의 아랫동서가 된 김광규 등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어울린 젊은 문학인들이었다. 김원일, 오규원, 김주영, 조해일, 조세희 등은 《문학과 지성》 창간 후 작품을 재수록하기로 결정해 그 동의를 받기 위해, 그러니까 작품을 먼저 알고 후에 인사를 나눠 사귀게 된 친구들이었다.

여기쯤에서 나는 앞자리 어디에선가 'J'라고 표기한 지금의 내 아내와의 만남을 고백해야겠다. 그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학

교에 전학해 들어왔는데, 같이 다니는 또래 여학생 중 제일 어리고 어리숙하게 보였다. 그 점이 내 눈에 띄었고 그래서 아이다운 방식으로 점을 찍어줬는데, 후에 알고 보니 학년은 나와 같았지만 시골에서 월반한 탓에 나이는 두살 어렸다. 고등학교 시절의 오가는 길에 더러 얼굴이 마

주치곤 했지만 나는 나를 알 것 같지 않은 그녀에게 물론 말도 걸어보지 못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같은 캠퍼스의 사학과에 다니는 그녀와 다시 마주치게 됐고 그 1학년 때 나는 수줍게 그녀에게 테이트를 신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3학년과 4학년 때의 재시도도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군 복무 시절 친구를 통해 그녀가 한국은행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돼 그녀에게 편지를 몇 번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를 읽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그녀와는 운명적으로 불가능하리라는 예감이 느닷없이 들었고 그래서 나의 편지질도 멈췄다.

신문사에 입사하고 전날의 미숙한 감정들을 정리해가던 나는 기자로서 맞은 첫 신문의 날, 흐릿하게나마 남은 미련을 마저 씻어내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으레 거절할 줄 알았던 그녀는 웬일인지 순순히 약속을 해줬다. 다방의 탁자에 마주한 그녀는 의외로 숙성했고 담담하면서도 스스럼없었다. 그녀와 정면으로,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 대한 것이 처음이었기에, 아득하게 멀고 추상적인 존재로 보여왔던 그녀는 이날 뜻밖에도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로 다가와 있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다시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화제로 꺼냈다. 나는 드디어 잠았다 싶은 빌미에 순발력을 발휘해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갈리마르판의 그 아름다운 책을 빌리자고 했다. 그렇게, 그 책이 오가면서 우리의 관계는 이어졌고 그 관계는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따뜻해졌으며 마침내 평생이 맺어지는 연분으로 발전하고야 말았다. 후에 김 현이 번역한 문예출판사판의 《어린 왕자》대본이 된 그 책이 중매가 돼 우리 사이를 "길들인 관계"로 만든 인연은 지금의 내가 돌이켜봐도 아름답고 희한한 것이었다.●



《동아일보》 문화부는 데스크를 맡았던 소설가 최일남 선생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자부심과 투지가 넘쳐 났는데, 언론자유운동이 극에 달했던 1975년에는 문화부 동료 전원이 해직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사진은 한국기자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돼 인사말을 하는 장면(1974년 10월).